

전북 문화콘텐츠 산업 도약 시동

도, 380억원 예산 투입... 게임·웹툰·음악·영화 등 산업 기반 확충·기업 성장 지원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게임·웹툰·음악·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총 3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 기반 확충과 기업 성장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200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창업기업 지원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집적된 지역에 세제 감면과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전주·익산·남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도는 입지 여건과 산업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최소 1개소 이상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성되는 200억 원 규모의 펀드는

지역 콘텐츠 기업의 투자 유치 한계를 해소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부터 성장 단계 기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전북자치도는 그간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전북웹툰캐릭터 △레드콘음악창작소 등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97개 기업·팀 입주 지원, 21건의 신규 창업, 매출 481억 원 달성, 358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을 더욱 고도화한다. 초기 창업 단계는 콘텐츠코리아랩을 중심으로 발굴·육성하고,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입주 공간 제공과 콘텐츠 제작·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구조다. 장르별 특화 지원도 강화된다. 게임은 글로벌

게임센터, 웹툰은 웹툰캐릭터, 음악은 레드콘 음악창작소를 거점으로 창작부터 유통까지 전주기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영화 분야에서는 독립영화의집 건립과 VFX 후반 제작시설 구축, K-Film 제작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기획·촬영·편집이 한 곳에서 가능한 첨단 제작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 영상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전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발전할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전북도가 관계기관과 역량을 모아 K-콘텐츠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문화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만호 기자

'춘향국악대전' 참가자 신청 접수

남원시, 6개 부문 13개 종목

남원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참가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번 경연은 총 6개 부문 13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3월 23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다만, 퓨전·창작국악은 원 활한 온라인 사전 검토를 위해 오는 4월 10일에 접수를 마감, 접수는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96회 춘향제 또는 남원시 공식 누리



지난해 열린 제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모습

사항은 제96회 춘향제 또는 남원시 공식 누리

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월 3일에는 일반부 본선과 대통령상을 가리는 판소리 명창부 결선이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국악창작 뮤지컬 '살다 보면' 등을 작곡한 윤일상 씨가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상 규모는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게 영예의 대통령상과 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되고, 일반부 각 부문 대상은 국무총리상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퓨전·창작국악 부문 대상은 국회의원상을 받게 되며, 판소리 고등부 대상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립합창단, '제157회 정기연주회' 4월 2일 개최

전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김철)은 오는 4월 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주홀에서 제157회 정기연주회 '헨델 메시아'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주제로 한 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서양음악사 대표 종교음악 작품이다. 특히 '할렐루야(Hallelujah)' 합창으로 널리 알려진 이 작품은 초연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합창 명곡으로, 장엄한 합창과 아리아가 어우러진 바로크 합창음악의

매력을 담아 깊이 있는 음악적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연주회에서는 누오베무지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오르간 반주(박원선), 소프라노 이미성,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김효중, 베이스 김대수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의 협연이 더해져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공연 입장권은 전석 1만 원으로, 나무쥬쳐 누리집(www.naruculture.com) 또는 전화(1522-6278)로 예약할 수 있다. 학생 및 예술인 패스카드·다동이카드 소지자 등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권희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6부 '굿패와 수녀' (5)

명희야! 어디에 있는 거냐!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생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동해원은 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몇몇의 나병환자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며 모여 살던 곳이 알려지게 되어 고창지역 나병환자들이 차츰 찾아오면서 형성된 나환자촌이다. 관에서 나환자들에게 식량과 약품을 배급했는데 거의 연명할 정도의 수준이었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형국이어서 집집마다 통중에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이 끊어지지 않았다. 마을의 모든 환자들은 같은 무덤 안에 들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숨이 끊어지거나 안 끊어지거나의 차이만 있을 뿐, 환자가 죽으면 보건소 직원들이 달려와 곧바로 근처에서 화장했는데 뼈까지 태워서 역시 근처에 묻어버렸다.

남준이 정읍 병원에서 만난 사내는 서른이 넘는 나이에 이름은 김동출이었고, 병세는 남준과 비슷했다. "나도 예전에 혼인을 약속했던 사모하던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미치도록 보고 싶구만..... 흐흐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김동출은 여유로운 말을 했다. 남준도 명희가 떠올랐다. 이주 먼 곳에 가 있을 것 같은, 아니 남준의 마음에서도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명희가, 보고 싶었다.

남준은 피리를 만져봤다. 동해원으로 들어온 뒤로 피리를 붙여본 적이 없다. 멀리 있을 명희처럼 피리도 남준에게서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나도 저 김동출처럼 그리워만 하다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저 김동출처럼 후회만 하다가 끝나면 너무 억울하다. 남준은 더 몸이 흥물스럽게 변하기 전에 명희를 보고 싶었다.

이미 얼굴의 반은 멍게처럼 돌기들이 솟아나 본래의 얼굴은 오간데 없었다. 명희를 만나면, 명희를 만나면 희망이 생길 것 같은 의욕이 생겼다.

났다는 것은 가망 없는 희망이었지만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명희가 곁에 있다면, 명희가 곁에 있다면..... 명희는 희망이었으며 희망은 곧 명희였다.

남준은 먹을 걸 싸 들고 집을 나와 뒷산으로 올라갔다. 선운산을 뒤져서 명희를 찾아볼 요량이었다. 남준이 선운산을 내려온 지도 일 년이 훨씬 지나 있었다.

고창 지역 전체가 군경에 의해 수복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빨치산들은 활동이 미

미했고 대부분 정읍 내장산과 순창 회문산을 통과해 지리산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여전히 깊은 골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남준은 한나절을 걸어서 선운산에 도착했다. 평소의 걸음보다 훨씬 느렸다. 무릎도 아프고 몸 여기저기가 수시고 저려 다리에 힘이 붙지 않아서였다.

한참을 앉아 쉰 뒤 산을 뒤졌다. 골짜기에서 빨치산의 은거지 흔적들을 발견했는데 떠난 지 오래되어 보였다.

비화산, 회여계곡, 도솔계곡, 청룡산을 거쳐 참담계곡에 닿았을 때 어둠이 몰려왔고, 남준은 툭툭 부은 다리로 석굴을 찾아 들어가 노숙을 한 뒤 다시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남준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명희야! 어디에 있는 거냐! 으흑으흑....."

한참을 울고 난 뒤, 명희의 눈이 더 나빠져 무리들과 이통하기 쉽지 않아 외가인 부안면 용산리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슬며시 머리로 스며들었다.

남준은 힘을 내 이끈 다리로 일어섰다. 계곡에서 내려가 선운산을 따라 가다보면 인천강에 닿을 것이고 강을 타고 내려가면 용산리에 도착할 것이었다.

체력이 바다나고 온몸에 통증이 몰려오면서 남준은 명희를 만나려는 일에 회의를 느꼈다.

이런 결례조각처럼 형편없는 몸을 명희에게 보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망신창이 된 몸뚱이를 명희에게 보여 실망시키고 눈물을 안겨다 줄게 뻔한데 굳이 찾아가서 이 썩은 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